

# 'NFT, 새로운 전이'展 개최

문준용~한승구 등 11명 "NFT아트는 이런 것" ... 서울 금산갤러리서 40여점 전시

'1세대 미디어아트' 작가 김창겸부터 '대통령 아들'로 유명한 문준용 작가 등 국내 미디어아티스트 11명의 'NFT 아트' 전시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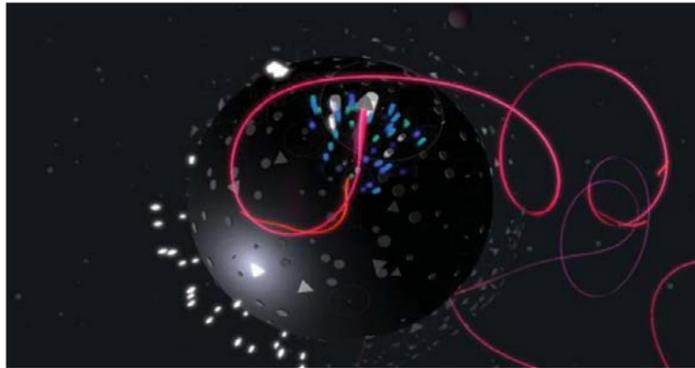
서울 회현동 금산갤러리는 'NFT, 새로운 전이' 전시를 14일 개막했다. 한국미디어아트협회(KMAA)에서 선정한 작가들로, 이들의 공동 작업을 포함한 미디어 작품 15여 점과 디지털 프린트 2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장은 NFT 작품을 한곳에 모아 실물로 감상할 수 있는 전용 감상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각 작가 별 콘셉트로 자유롭게 꾸민 개별 섹션으로 채웠다.

금산갤러리는 "동시대 현대미술계에서 화두로 부상한 NFT 아트 분야는 메타버스라는 3차원 가상공간이 생기면서 급부상했지만 대중에게는 모호한 분야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번 전시는 NFT 아트를 알리는 것에 대한 탐구와 고민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부터 사실과 거짓, 현실과 환영을 연출하는 작업을 해온 미디어아트 작가 김창겸은 이번 전시에서 'Flower Garden'을 선보인다. 화려한 색깔과 신화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붓다의 연꽃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공지능에게 태화, 우리나라 전통문양, 만다라 등의 이미지를 학습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수천 수만 송이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과정의 반복재생을 통해 험한 생명의 에너지를 전한다.

'대통령의 아들'로 전시 때마다 주목받고 있는 문준용은 이번 전시에 '소리를 향한



문준용, Flying Toward The Sound (소리를 향한 비행), 2019, single channel video with stereo sound (10 min 22 sec), dimension variable

'비행' 작품을 내놓았다. 작가가 가지고 있던 '비행'에 관한 환상을 가상 공간에 펼쳐 컴퓨터가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디옌을 만들었다.

비행을 하는 상상을 할 때 작가의 머릿속에 있던 물체의 움직임의 궤적과 소리들이 함께 뒤섞여 작품은 조화로운 색과 소리의 발산이 그려진다. 컴퓨터가 무작위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 했지만, 결국은 조화를 창조하는 것을 의도했다. 관객이 센서 앞에서서 (비행기처럼) 움직이면 이를 인지한 후 프로그램 된 울동 이미지로 스크린에 투사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다.

이 전시는 이미 NFT를 통해 성과를 이룬

작가와 NFT 미술 시장에서는 신진인 예술인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NFT를 매개로 만나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예술계의 선배배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10년 이상 디자인 틀을 다뤘은 전문 디자이너와 실력 있는 디지털 회화 작가들의 대거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작품과 국내 NFT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간 금산 윈도우 갤러리에서는 작가들의 디지털 프린트를 포함한 소품 등 아기자기한 작업도 함께 전시된다.

/뉴스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 광고 모습.

##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 전국 TV 광고 송출

태권도진흥재단·대한민국태권도협회, 한 달간 온라인 통해 대국민 홍보 나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 이하 재단)과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이 태권도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수련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태권도장들의 어려움에 앞장 서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전국 방송채널에 광고를 송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이번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 광고는 SBS, KBS2 등 전국 지상파와 JTBC 등 중계채널, YTN 보도전문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약 한 달간 선보일 예정이다.

광고 모델로는 KBS '신상출시 퍼스트라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배우 김재원과 아들 김이준 군, 그리고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황경선 선수가 출연해 태권도 수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재원의 아들 김이준 군은 태권도 1품으로 방송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발차기와 송관격과 등을 보여준 바 있는 태권도 수련생으로 광고에서는 '헛것 발차기를 하면 기운이 난다'며 태권도 품새를 선보이며 태

권도 사랑을 표현했다. 이번 광고는 국기 태권도를 위한 도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두 기관이 협력한 것으로 태권도 수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친 삶에 에너지와 자신감, 인내심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체계적인 방역으로 안전한 태권도장 운영과 관리를 통해 수련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태권도장 방문을 독려하는 뜻을 담았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는 태권도장 활성화가 기본, 이를 위해 최초로 TV 광고를 진행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는 만큼 태권도로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태권도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태권도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의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가필요해' 인스타그램 영상 콘테스트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 지역문화 점수 '최고' ... 완주·서울 종로도 높아

3년간 지자체 문화시설, 인구 대비 14% ↑

지역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라북도 전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14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000명당 0.08개, 1만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1000원)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진흥 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등록예술인 수(110%), 화예전문인력(59%)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 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

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문화 활동 부문에서의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 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뉴스

## 춘향제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92회 춘향제 '다시, 사랑' 주제 5월 4~8일 진행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이광연)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92회 춘향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제92회 춘향제는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 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진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5월 4일부터 5일까지는 행사를 축소하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대면 행사 중심으로 탄력성 있게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급년 92회 춘향제의 주제인 '다시, 사

랑'은 그동안 비대면 형식의 행사로 구성되어 참여하지 못해 많은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춘향제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아 춘향과 몽룡의 변하지 않는 마음처럼 다시 한 번 춘향제를 사랑하자는 뜻으로 지어졌다.

이광연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장은 "90회 춘향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춘향제를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번 춘향제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춘향제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